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확보 사활

도내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 가져... 6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적·필요성 등 언급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도내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국회 예산 심사 단계를 앞두고 도와 정치권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필수예산사업에도 정부 예산안에 부족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 새만금 신항만 건설 ▲ 탄소산업 클러스터 ▲ 상용차 전장기능 안전 솔루션 사업 ▲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 ▲ 태권도 명예의전당 건립 ▲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등 6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도와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3당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핵심사업 국가예산확보를 공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요 사업의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 확보를 위해 국회 상주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긴장의 끈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지사는 국회 각 상임위 위

원장과 수석전문위원, 예산분석실장 등을 잇따라 만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 학교급식 만족도 87.6점 지난해보다 0.7점 상승

전북 학교급식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급식 학교 만족도가 평균 87.6점으로 조사돼 지난해에 비해 0.7점 상승했다.

급식 만족도 조사를 대상으로 보면 ▲학생 83.7점 ▲학부모 91.1점 ▲교직원 94.8점 등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91.3점으로 나타나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중학교 85.8점·고등학교 80.4점·특수학교 91점 등이다.

또 급식학교 만족도 조사와 함께 아침 식사에 대한 식습관 조사도 이뤄졌는데 '항상 먹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60.3%로 나타났다.

그러나 17.2%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급식운영 개선 및 위생·안전성 확보, 식생활 교육 등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북 전체 학교 중 조리학교 546개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2만64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뉴시스

전북 생태관광,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내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유치 통해

전북도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예정인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유치를 통해 '전북 생태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전북을 방문한 환경부 조경규 장관까지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장관회의 개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다음 해 4월 국내에서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도는 환경부에 유치 희망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회의는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환경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장관회의는 매년 3개국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26~27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회의를 가졌다.

다음 해 장관회의는 국내에서 4월이 개최된다.

이에 환경부는 장관회의 개최지를 물색해 왔다. 전북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6개 시도가 유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최종 개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 열린 장관회의는 부산과 서울, 대구, 제주에서 개최됐다. 호남권에서는 한 차례도 개최된 전력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읍시에서 열린 '제2회 생태관광페스티벌'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은 전북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내는 장관회의 유치에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장관회의 유치를 자신하는 이유다.

특히 도는 장관회의 유치를 통해 생태관광을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삼겠다는 전략이다.

조 환경부 장관은 생태관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은 1시·군 1생태관광을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향후 장관회의 개최 시 국내 성공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장관회의 유치는 곳 지역 사업에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장관회의 최종 결정은 내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북은 호남권의 최초 개최, 새만금 방조제 등 각종 강점을 갖고 있어 대회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북스마트침센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

전북스마트침센터가 18일 전주시대 부고를 찾아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사대부고 학생 250여 명이 참석해 '도전! 스마트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근 기자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

전북도, 28일까지 접수

전북도, 대표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에 나선다.

전북도가 농림식품부와 추진하는 '2017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를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발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가 2020년까지 92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시 경영체당 10억원에서 2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보조율은 국

비 50%, 지방비 40%로 총 90%에 달하는 사업이다.

도는 5개 이상 경영체를 선정해 전북을 대표하는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육성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농업법인, 농업조직, 협동조합으로 사업신청 2015년도 말 기준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이 2년 이상 된 조직들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전북 고용창출 위한 실천적 대안모색'

대한노사발전연구원, '제4회 노사발전포럼' 오늘 개최

국내 민간에서는 최초로 창립된 (사)대한노사발전연구원(원장 윤진식)이 19일 오후 4시 터존뷔페 베토벤 홀(전주시 송천동)에서 '전북 고용현상인식과 고용창출을 위한 실천적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제4회 노사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노사발전포럼에는 진흥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황현 도의회의장, 조봉업 전주부시장, 김명지 시의회의장, 고광훈 노동부전주지청장,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본부장, 김동창 전북경총본부장 등 정계·재계·노동계·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전북 고용정책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포럼 발제는 양동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무이사과 이경래 노동부전주지청 지역협력팀장이 '전북 고용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과 '전북고용지표 및 지역일자리 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북 일자리 현황과 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이러 토론회에서는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부국장, 장윤식 알앤디(주) 대표, 박영훈 (주)앤조이잡스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진식 원장은 "최근 고용문제가 주요 어젠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실시간적 입장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고용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대한노사발전연구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사업자와 노동자가 하나 되기를 위한 순수민간연구단체로, 향후 전북의 고용 및 노사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포럼·교육·정책연구·법률지원 등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뉴시스

2017 유·초·특수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3.15대1

2017학년도 공립 유·초·특수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3대1을 넘어섰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립 유·초·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211명 모집에 664명이 접수해 평균 3.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교사의 경우 161명 모집에 202

명이 접수했고, 유치원은 37명 모집에 340명이 지원했다.

또 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2명)의 경우 17명이, 초등학교(11명)에는 105명이 각각 접수했다.

도 교육청은 1·2차 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 1월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